

새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작

‘엣폰’ 북가주지점... 전화 대 전화 방식

전화기구입 200달러
월 사용료 4.95달러
월 500분 국제통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존 인터넷 전화의 불편을 없애고 전화대 전화 방식의 인터넷 전화기가 한국에서 개발, 미국에 상륙했다.

엣폰(@phone) 북가주지점의 조종현 지점장에 따르면 엣폰 서비스는 일반 전화기와 똑같이 생긴 인터넷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면 인터넷을 타고 한국까지 통화가 자동 연결된다.

조 지점장은 "인터넷을 통해 음성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다이얼 패드 등 기존 인터넷 전화와 유사하나 컴퓨터를 꺼도 통화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어도 일반전화기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설립된 엣폰 텔레콤이 개발한 이 전화방식은 올해 4월부터는 일반전화기와 똑같은 수준의 통화품질을 자랑한다.

엣폰의 통화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로 전송된 음성이 목적지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 소비자는 우선 기존 전화번호와 유사한 8자리 숫자의 엣넘버를 부여받아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ICC(Internet Communication Center)로 연결된다. 이곳의 서버가 인터넷과



엣폰 북가주 지점장 조종현씨가 엣폰 전화기로 한국과 통화를 하고 있다.

일반전화, 그리고 셀룰러폰으로 연결시켜 일반 전화기와 똑같은 기능을 하게된다.

엣넘버는 자신의 이메일 번호로도 사용되며 전화기의 액정화면을 통해 증권과 날씨, 환율, 이메일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엣폰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전화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200달러를 내고 엣폰을 구입하면 월 4달러95센트의 사용료만 내면 20MB 크기의 이메일구좌를 무료로 사용하고 매월 500분

간 한국이나 중국 등지로 국제통화가 가능하다. 통화량이 500분을 넘어도 매3분당 4.9센트로 일반 국제전화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기존 인터넷폰이 컴퓨터와 마우스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부팅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엣폰은 수화기만 들면 바로 통화가 가능하다.

한가지 단점은 사용자가 우선 DSL이나 케이블과 같은 고속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고정 IP 주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 더욱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다.

조지점장은 "지·상사나 무역업체 등과 같이 국제통화가 많은 곳은 물론 한국의 가족과 통화량이 많은 일반 가정에서도 엣폰을 설치하면 통신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엣폰은 북가주 상륙을 기념해 1,000대 한정 통신서비스를 시작하며 보급소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 415-235-6910.

〈한범중 기자〉

현대차 판매 53% 급증

키오키 미구세 배시 원 스투